

## 후지보 - 연속머서가공사로 여성용 외의 등의 수요확대

후지보는 2003년 4 6월 동안 SARS의 영향을 받아, 연속머서가공사의 수출이 부진하자, 수출계획에 미달된 양을 일본내 시장에 판매하여 전년의 1,000톤 수준의 연간 총판매규모를 유지할 방침으로 있다. 때마침 다행히 연속머서가공사의 수요가 일본내의 여성용 외의(外衣)시장에서 증가할 것 같다.

후지보는 시즈오카(静岡)현에 있는 후지보 고야마(小山) 공장에 세계에서 가장 처리능력이 큰 실 연속머서처리시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본경제의 버블(bubble : 거품) 경기가 붕괴하면서 머서가공사의 수요가 95년 생산량수준인 500톤으로 감소하였다. 다행히 수년 전부터 점차로 국내외의 수요가 회복하여, 95년에 일본내 수요가 400톤 정도 였었는데 2002년에는 700톤으로 증가하였고, 95년에 100톤 정도이던 해외수요가 2002년에는 300톤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7월부터는 수출도 회복될 징조가 보이는데, 지난 4 6월의 SARS 영향으로 발생한 수출감소량을 회복할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여성용 외의시장에서 새로 개발한 연속머서가공사가 좋은 평을 받고 있어, 일본내의 판매량을 적극 증강시켜, 이 머서가공사의 총판매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